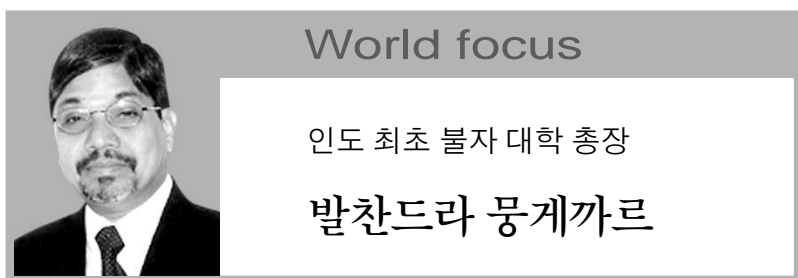


“자비와 정의, 도덕적 사회 구현의 필수”

지난 2000년 5월 16일, 인도 역사는 또 하나의 '새역사'를 창조했다. 최초의 불자 대학총장, 그것도 다름아닌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뭄바이 대학교(Mumbai University) 총장이 불교도 중에서 탄생한 것이다. 인도에서 '불교도'가 갖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촉천민', '소외된 소수파' 등으로 다른 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불자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당시 신문의 사회면은 거의 그 소식으로 채워지다시피 했었다.

새 역사의 주인공은 발찬드라 뭉게까르(Balchandra Mungekar) 박사. 천민출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뭄바이대학교의 총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이른 일지전적 인물이다. 11월 25일 총장실에서 만난 뭉게까르 박사는 자그마한 키에 얼굴엔 늘 미소를 띠고 있지만 두툼한 안경 너머 엿보이는 다부진 눈매가 그가 헤쳐왔던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인도 마하리슈트라주(마하라슈트라)의 뭉게까르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4살 되던 해에 어



World focus

인도 최초 불자 대학 총장

발찬드라 뭉게까르

14살 때 암베르까르 박사 따라 귀의 대학내 불교학 연구 기반 마련 원력

머니를 여의었다. 남의 땅에서 품을 팔아 근근히 가족들을 부양하던 그의 아버지는 이후 두 남매의 어머니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다. 중등과정까지 고향 마을에서 교육을 마친 뭉게까르 박사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고향 마을에 남겨 둔 채 뭄바이로 진학한다.

청운의 꿈을 품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었지만, 뭄바이에서의 생활 역시 만만치 않았다. “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해가 지고나면 책을 들고 거리의 가로등 밑에 가서 공부하곤 했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는 ‘인도 은행’에 취업했다. 그렇다고 자신의 꿈인 공부를 포기해 버리기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는 직장에 다니는 한편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주경야독’은 그가 박사학위를 받

을때까지 계속되었다.

뭉게까르 박사가 불법에 귀의한 것은 14살 되던 해인 1960년. 1956년 개종한 암베르까르 박사를 따라 온 가족이 불자가 된 이후부터다. 이 때를 그져 아버지의 결정을 따른 것에 불과했지만, 17살 때 암베르까르 박사가 쓴 불교 교리서 <붓다와 그의 법>을 읽고부터는 불법이 인생의 지침이 되어왔다고 그는 말했다.

뭉게까르 박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자비와 정의. 이 두가지는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보다 도덕적인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가르침으로서, 이러한 교리를 통해 불교가 사회 전반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뭉게까르 박사가 가진 원력은 그의 총장 재임기간동안 뭄바이 대학에 불교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은 이를 위해 불교학 전담 교수직을 신설하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주(인도) 한국 대사관 만남 자리에서 교수직 신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도 뭄바이= 이지은 통신원



⑧ 뉴저지 주립대 종교학과

“552년 한국인이 불경과 불상을 가져오면서 일본 불교는 시작됩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후에도 유교, 도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가 한반도에서 전해졌습니다.”

25일 뉴저지 주 뉴 브런스윅 러커스(Rutgers) 유니버시티. 종교학과가 위치한 로리빌딩 대강당에서 지나 코간(Gina Cogan) 교수가 ‘동양의 종교(Religion Of The Eastern World)’ 수업 중 일본 불교의 유래를 설명한다. 한국이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는 사실이 ‘불교’하면 일본 불교의 ‘젠(Zen)’을 연상하는 학생들은 민기 지 않는 눈치다. 특히 불교의 영향으로 ‘카미’를 숭상하는 일본의 토속 종교인 ‘신도’가 생겨났다는 사실은 더욱 신선할 뿐이다.

네 명이 불교학 또는 동아시아 연구자다.

학과장 쉐인 교수는 72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러커스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그의 관심 분야는 중국 불교사, 중국 종교, 여성 문제 등이다. 이밖에 헨리 보우덴, 에드윈 브라이언트, 알버트 그린 교수 등이 미국의 종교, 힌두교, 기독교 신학, 종교철학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학과목으로는 불교학, 동아시아 종교, 힌두교, 종교와 정치, 종교와 사회(세미나) 등이 운영 중이며 동아시아 문화학과와 함께 다양한 협력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연구가 중심 문화학과와 다양한 연구 진행 매해 3천명 이상 수업 참석

동아시아학과 왕 반 교수도 저명한 불교학 연구자로 꼽힌다. 다만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근 명문 사학에 가려 종교학과 대학원 과정은 없다.

러커스 종교학과에서는 2000년부터 러커스 뉴 브런스윅에만 있다. 컬럼비아 대학 등 명문 사학의 유명세로 한국인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졌다. 이 대학 종교학과는 동아시아 불교 연구가 강세를 띠는 점이다. 컬럼비아, 프린스턴 대학이 기독교 신학 연구의 오랜 전통을 쌓아왔다면 주립인 러커스는 뉴저지, 뉴욕의 동양인 커뮤니티를 위해 동아시아 종교와 문화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불교학자인 쉐인 반 유 교수가 학과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불교학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그는 중국 불교의 관심 분야를 다룬 ‘... 등 불교학 연구서를 펴냈다. 또한 9명의 조교수 중 무려

뉴욕= 강유신 특파원

대만 불교계, 정신의학계 우울증 환자 돕기 나서

최근 대만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자살 사건과 우울증 환자의 급증과 관련, 중화대승불학회(中華大乘佛學會)와 ‘우울증 예방 치료협회’가 공동으로 ‘영혼의 상처 구제 운동’을 발기해, 국민들이 21세기의 심리 질환의 심각성을 중시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화대승불학회의 저성(徵聖) 스님은 “현대인의 우울증은 바로 유행성 감기 같아, 사회의 모든 힘을 모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대승불학회는 우울증 원인, 증상 및 치료 방법 등을 해설한 ‘우울아, 안녕!’이란 VCD를 제작해 무료로 시민에게 나눠 주고 있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중국 장춘에 88미터 불상 건립

중국 지린(吉林)성의 장춘(長春)세계풍경공원은 2004년 이 공원에 88.08미터 높이에 달하는 북령산(北靈山) 대불(大佛)을 세울 예정이다.

북령산대불은 우시(無錫)의 영산대불과는 지대관계라 할 수 있는데, 우시의 영산대불은 18미터로 언니, 북령산대불은 88.08미터로 동생격이다. 이로써 이 두 대불은 중국의 남북 불교를 대표하며 이어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 한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불교, 美 주류사회 급속히 확산

불교가 합리적인 종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가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12월 7일, <볼티모어 썬>지가 보도했다.

썬지는 “일반인들이 일반이나 오늘날 서양화된 명상법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불교는 지식인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과학자들은 뇌파 기록장치나 자기공명장치로 명상 중인 스님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술, 약물 치료,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명상을 ‘이완 요법’이라 부르며 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메릴랜드대학 그랜 윌라디 교수는 “명상의 효율성은 제대로 된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됐다”고 밝혔다. 매일 아침 15분 정도 명상 수행을 한다는 그는 “명상이 몸 안에서 스트레스와 반대 방향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명상은 자동차 세일즈맨인 밥 패럿 씨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몇 달 전 암 진단을 받은 밥 씨는 서점인 반스 앤 노블스에서 명상 안내서를 구입해서 읽은 후부터 매일 명상에 빠져 지내고 있다. 밥 씨는 “명상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며 “명상을 통해서 자동차 세일즈맨, 남편, 아버지가 아닌 바로 내 주인공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발견을 통해 죽음의 공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썬지는 명상에 신경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인됐다고 보도했다. 명상 효과는 75년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의 ‘이완 반응’이 소개된 이후부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지 않는 이유는 서양인들이 명상 수행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볼티모어 썬’지 보도



명상 중인 자동차세일즈맨 밥 패럿 씨.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른길 사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은,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해주신은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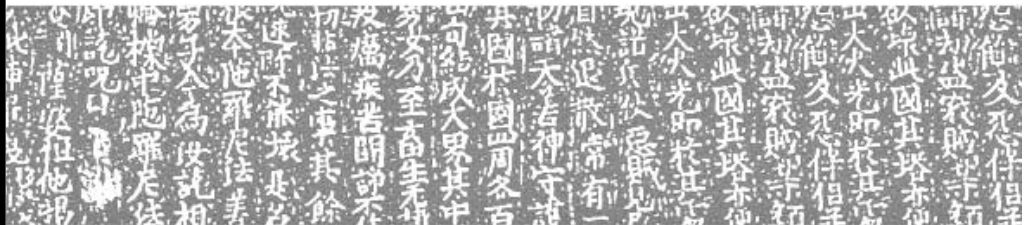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수삼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화 (02)706-3502~5
가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강의: 법산스님 (동국대학교 신학과 교수, 정각원장)

본 법구경(法句經) 설법집은 2002년 3월 18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14개월에 걸친 포교방송의 경전공부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89일분을 선별하여 엮은 내용이다.

법구경은 원시불교의 경전으로, 원래 인도인 경전(梵語)인 Pāṇinīya의 한어 음역본(漢譯本)이다.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며 불교의 사리에 가장 널리 인용되어 오늘날에도 많은 법구경의 원(源)인 Pāṇinīya의 dharmas가 된다. padu가 말한바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법구경은 현대 불교의 근본, 불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BBS 불교방송